


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배포일자		2021년 8월 4일(수) 총 2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농축산유통과	담당자	• 농산물유통팀장 장세환 ☎440-4371 • 담당자 이성길 ☎440-4372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‘푸드플랜 수립’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어

- 인천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-
- ‘시민 모두가 행복한, 지속 가능한 건강 먹거리 모델 도시 인천’ 비전 제시 -
- 빠른 시일 내 급식지원센터 설치, ‘22.3월부터 학교급식 현물지원 사업 진행 예정’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8월 4일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인천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‘인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, 먹거리준비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,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.

먹거리 종합계획(푸드플랜)이란 우리 지역 내에서 먹거리를 생산·유통하고, 소비하는 모든 과정과, 이와 연결된 안전, 영양, 복지, 환경,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관련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이른 바 ‘지역 먹거리 종합전략’이다.

연구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아이엔케이(아이엔케이)는 지난 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먹거리 준비위원회 개최, 지역 먹거리 순환 심층실태 및 관계자 인식조사, 타시도 현황조사,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 최종안에 반영했다.

주요내용으로는 ‘시민 모두가 행복한, 지속 가능한 건강 먹거리 모델 도시 인천’이란 비전과 함께, 2026년까지 ▲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(558ha⇒800ha) ▲로컬푸드 직매장 수 확대(5개소⇒8개소) ▲급식센터 참여 학교 수 확대(0개교⇒350개교) ▲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활성화 자치구 증가(3개⇒7개) ▲민관 거버넌스 활동 활성화(0회⇒6회)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8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.

박남춘 시장은 “지속가능한 지역 농식품 선순환 체계를 갖춘 ‘지역 먹거리 이음 도시 인천’을 만들 것”이라며 “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‘22년 3월부터 학교급식 현물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시는 용역결과를 활용해 하반기 내에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, 먹거리 위원회 출범,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·인천시 인터넷방송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